



수염풍뎅이 / *Polyphylla laticollis manchurica* Semenov, 1900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|
| 생물분류 | 곤충 |
| 속국명 | 수염풍뎅이속 |
| 과국명 | 검정풍뎅이과 |
| 과명 | Melolonthidae |
| 일반특징 | <p>검정풍뎅이과 중 가장 크다. 더듬이는 10마디인데 끝에 곤봉처럼 생긴 부분은 수컷이 7마디로 매우 길고 굽어 있으며, 암컷은 5~6마디로 직선 모양이다. 수컷의 더듬이에서 곤봉 모양처럼 생긴 부분은 앞가슴등판 길이의 약 1.5배이고 중간이 굽어 있다. 반면 암컷은 이 부분이 더듬이 자루의 길이보다 짧다.</p> <p>암, 수 모두 다리마디 안쪽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. 몸은 굵고 긴 타원형으로 짙은 적갈색을 띤다. 등에는 매우 짧은 회백색 내지 황백색 털이 얼룩 무늬처럼 덮여 있다.</p> <p>국내는 중부지방, 제주도, 국외는 중국, 몽고, 일본에 분포한다.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나 주로 6~7월에 많다. 밤에 불빛을 보고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. 에벌레는 땅 속에서 소나무류, 사시나무류, 참나무 등의 뿌리를 갉아 먹는다. 1950년대까지는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.</p> |